서울시 9급
총평:
한국사 문제를 보니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2016년 서울시 9급과 지난 주에 있었던 지방직 9급 문제의 난이도와 비슷하여서 합격권 수험생들의 수준은 85점 정도가 되면 선방한 것 같고 90점 이상이면 고득점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건 강사 개인의 눈높이에 따라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시험 직후에 올라오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한 것입니다.]

이번 시험의 경우에도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헷갈리도록 낸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거문도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오전의 발행을 묻는 문제, 단군조선에 대한 기록을 물으면서 '표제음주동국사략'이라는 생소한 책을 정답으로 만든 문제, 이황과 이이를 비교하는 것을 묻는데, 제시문을 어렵게 낸 문제, 흥선대원군의 업적을 묻는 문제, 그리고 가장 헷갈렸던 문제는 아마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문제였을 것이다.

물론,
상기 문제 중에서 단군조선에 대한 문제의 경우에 선택지에 워낙 명확한 다른 선택지를 통해서 소거법으로 접근해서 풀면 답은 찾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황과 이이문제 역시 선택지에 이황에 관한 내용이 2개 있으므로 저절로 이이의 기자실기가 정답이 될 수 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소거법으로 접근하지 못한 분에게는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9급 수험생 눈높이에 맞춰서 평가해봤을 때 상기와 같은 합격권 점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길샘 강의를 2.0개념완성 ->3.0기출 -> 5.0최종점검의 필수강좌를 차근차근 들어오신 분이라면 아래 문항별 해설과 함께 오늘 저녁에 올릴 해설강의를 보시면 각 문항별 [합격생필기노트]페이지를 모두 공개하고 교재 어디서 출제되었는지 20문항 모두 찾아드리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이 먼저라는 문제를 제외하면 실수만 하지 않고 소거법으로 선택지를 접근했다면 95점은 충분히 맞힐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올려주시면 한길샘이 댓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길샘

문항별 정답과 해설[B책형]

1.1
1885년 거문도사건...당오전 발행 1883년 전환국에서 발행....한성순보는 1884년 페간, 서유견문은 1895년 출간, 1883년 관세규정이 들어간 조일통상장정

2.1
묘청과 김부식 비교
묘청은 요나라가 아니라 금국 정벌 주장, 삼국사기는 편년체가 아니라 기전체

3.1
제시문은 '참회'강조를 통해서 요세스님임을 알 수가 있다. 9산선문 통합노력은 보우, 교관겸수는 의천, 돈오점수는 지눌

4.4
제시문은 남북기본합의서로 노태우정부 때이며, 노태우정부는 적극적인 북방외교를 펼쳤다.

5.2
단군조선의 역사를 다룬 책으로 '표제음주동국사략'이 정답이다. 처음 듣겠지만 소거법으로 접근해도 답은 찾을 수가 있다. 즉, 삼국사기는 당연히 고조선 언급 없고, 연려실기술은 조선시대 정치, 문화사만 다룬 이긍익의 저서이며, 고려사절요는 고려시대 역사만 다룬 책이다.

6.3
기언은 한치윤의 저서가 아니라 허목의 저술이고, 한치윤은 기전체의 해동역사를 썼다.

7.4
제시된 지도는 공민왕의 업적과 관련된 지도이다. 과전법은 공양왕 때, 철령위 설치는 우왕 때 설치통보를 받아서 요동정벌의 발단이 되고, 전민변정도감의 설치가 공민왕 때이다.

8.1
조선후기 경제 변화를 묻는 문제로 소수공업은 조선이 아니라 고려새대 수공업이다.

9.3
태조 때 공신에게 공로기준으로 나누어준 토지가 역분전이다. 공음전은 6품이 아니라 5품이상, 전시과는 9등급이 아니라 18등급으로 차등, 왕실경비 마련을 위한 전시과는 공해전이 아니라 내장전이다.

10.2
제시문은 각각 1943년에 발표된 카이로선언과 미, 영, 소 중이 참여한 1945년 12월에 개최된 모스크바3국외상회의 내용이다.

11.2
제시문은 왕권강화, 지역단위 방어체제인 진관체제를 통해서 세조임을 알 수가 있다.
경국대전 편찬은 성종 때, 사간원 독립은 태종 때, 계해약조는 세종의 업적이다.

12.4
제시된 이 책은 '대학연의'를 보완한 이이의 "성학집요"이다. 따라서 정답은 이이의 기자실기이다.
제시문이 누군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소거법으로 접근해도 1번의 경과 의를 근본으로 강조한 이황, 1번의 기대승과 사칠논변을 벌인 이황이고 3번은 서경덕이므로 이황과 이이를 고민했다고 하더라도 이황에 관한 내용이 두 개이기 땜에...이이로 답하면 된다.
이렇게 소거법으로 접근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13.3
만동묘와 서원 철폐한 흥선대원군 업적을 묻는 문제므로 3번이 답이 된다.
즉,
임오군란 때 구식군인들에 의해서 추대된 흥선대원군은 통리기무아문과 12사 및 별기군을 폐지하였다. 군국기무처 총재는 김홍집, 갑신정변 당시 대원군은 청에 압송된 상태였으며, 민씨정권이 청군의 원조를 요청하였다. 강화도조약 직전에 대원군은 당시 서원정리로 인한 화서[이항로]학파 중심의 위정척사유생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었다.

14. 4
대한민국임시정부 문제로 가장 헷갈렸던 문제였을 것이다.
즉,
임시의정원은 임정수립 직후가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직전에 먼저 구성이 되었다.
즉, 임시의정원이 먼저 4월에 구성된 후에 임시의정원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임시정부라고 칭하게 되었다.

15.2
초기 여러나라들을 묻는 문제가 가장 쉬웠던 문제이다.
즉, 어물과 소금 등 해산물이 풍부했던 것은 옥저, 1책12법과 형사취수제는 부여와 고구려, 책화는 동예, 신성지역인 소도에서 천군의 제사는 삼한, 동맹은 고구려, 민며느리제는 옥저, 제가회의는 고구려이다.

16.3
삼국 통일과정의 순서를 묻는 문제로 백제멸망 660년, 백제 부흥운동의 백강전투 663, 고구려 멸망 668, 매소성전투 675년이다.

17.4
광해군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로 '제승방략체제'는 을묘왜변 직후인 명종 때이다.

18.3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묻는 문제로 제시문의 빈칸 (가)는 1894년 5월 8일에 체결된 전주화약이다. 전주화약 결과 집강소가 설치되어 폐정개혁안이 실천되고 정부에서는 교정청을 설치하였다. 1번의 전주화약은 청일전쟁 발발 전이고, 2번 법규교정소는 광무개혁때 설치된 것이며, 제물포 조약은 임오군란 직후에 체결된 것으로 동학농민운동과는 관련이 없다.

19.2
현대사의 민주화운동의 순서를 묻는 문제로서 제시문은 차례대로 6월민주화운동, 시민군 관련 내용은 80년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노태우의 6.29선언은 6월 민주화운동 결과 발표된 것이다.

20.2
제시된 자료는 통감부의 내정간섭 강화를 다루고 있는 1907년 7월 24일에 체결된 정미7조약 내용이다.
2번의 헤이그특사 파견은 1907년 4월이므로 순서가 잘못되었다.